



## 제16차 물류정책토론회 제3자 물류활성화는 21세기 대한민국의 생존전략 차원에서 추진



(사)한국물류협회(회장 서병륜)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로지스틱스학회, 매일경제신문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로지스올 그룹, 대한통운, 물류신문사가 후원한 제16차 물류정책토론회가 지난 6월 23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1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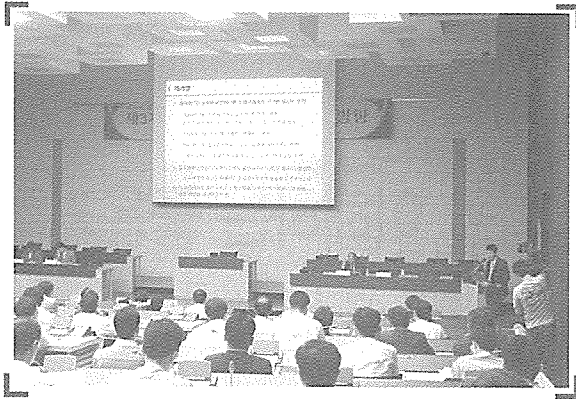
서병륜 (사)한국물류협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3자 물류활성화를 위한 물류정책들 중에는 경제환경의 변화와 우리의 실태에 비추어 민관의 긴밀한 협력과 노력하에 보완돼야 할 점이 많다”며, “오늘의 토론회를 통해 물류강국화를 위한 정책적 합리화방향을 모색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진행인 한국로지스틱스학회장은 “최근 정부에서 종합물류기업 육성을 위해 10대 기업을 지원대상으로 선정발표함으로써 국제적 수준의 경쟁력 있는

우리 물류기업 육성을 위한 실질적 지원 정책의 시작으로 보여지며, 오늘 토론회를 통하여 물류정책에 대한 분석과 중요한 정책건의가 나오기를 바란다”고 인사말을 대신했다.

이승한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위원장은 “물류전문기업 육성의 취지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고 정책지원도 집중되고 있어 앞으로는 제3자물류가 지금보다 훨씬 많이 활용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전만술 한국물류연구원 원장의 사회로 “제3자물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제3자 물류 활성화 정책에 대한 평가와 제언”, “종합물류기업 육성정책의 합리화 방향” 나뉘어 인하대학교 하근구 교수와 CJ-GLS 이병욱 박사가 각각 주제발표를 하였다.



오늘 토론회의 지정토론자로는 한만환 팀장(GS리테일 물류기획팀), 서상범 박사(한국교통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성원 박사(호상기업 대표이사), 신광호 사무관(건설교통부 물류정책팀) 등이 참석했다.

하헌구 교수는 제3자 물류활성화 및 국가 물류체계 효율화는 21세기 대한민국의 생존전략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하는 동북아 물류허브 전략 성공의 선결과제로 보고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첫째,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물류기업 육성방안”에서 제시한 정책의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화주기업의 자가물류에 대한 지원을 폐지하고, 인증된 종합물류기업에 대한 지원과 기업의 물류아웃소싱에 대한 세제 지원은 확대되어야 한다.

둘째, 물류기업육성방안에서 제시한 정책의 유효성 및 실현 가능성이 증대되어야 한다. 3자물류시장의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의 강화로 물류아웃소싱에 대해서 5%이상의 법인세 감면 및 적용기간을 5년 이상 추진이 필요하다. 또 인증기업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병역특례지원,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 등 차별화된 지원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셋째,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제3자 물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조정을 위한 기능강화를 위해서 대통령 직속의 “물류비서관”을 신설하여 동북아 물류중심화 전략, 국가 물류체계의 효율화 및 물류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의 조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해당사업주체인 물류기업의 역량강

화를 위해서 중국·인도 등 거대시장에 진출하는 등 진취적인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여 국내외 시장에서의 화물처리실적을 제고하는 글로벌 종합물류기업으로서의 영역을 확대하고, 또한 서비스의 질적제고, 서비스 범위 확대, 글로벌 SCM 서비스 제공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병욱 박사는 “종합물류기업 육성정책의 합리화 방향”을 위한 정책 제언으로 물류기업을 이용하는 고객의 요구에 대한 서비스 범위와 지역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해외시장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해외진출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집중 육성하는 한편, 일괄위탁시 법인세 감면과 물류기업의 통합화 및 대형화를 통한 시장활성화하여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03년 세계물류시장 규모는 5,671조원으로 한국의 물류시장은 90조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물류 아웃소싱 비율도 48%에 지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대형기와 특화기업으로 양분화 되는 추세로 대부분의 물류기업이 운송위주의 부문별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대형화 국제화를 유도하고 첨단정보화를 통하여 물류기업을 글로벌 물류기업과 경쟁하는 종합물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또한 국가적으로 동북아 물류허브로서 성장하려면, 동북아 환적중심의 국가에서 재가공 수출강화를 통한 화물창출형 국가로 5년 이내에 성장하여 대륙간 중계 기능을 수행하는 비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물류**